

바뵈프 변론문

붉은물결

나는 집정내각 치하에서 민중의 주권이 무시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특정계급에게만 부여되는 것을 보았다. 특권이 다시 등장하고 민중은 출판과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청원권과 무기휴대권까지 빼앗기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법률을 인준하는 권리조차 시민에게서 박탈되어 제2의회로 귀속되었고, 민중과 무관하며 민중의 통제를 벗어난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구호사업과 교육이 까맣게 잊혀지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민중의 절대적 지지 속에서 약 5백만 표로 채택된 1793년 헌법이, 수상스러운 백만 표 미만으로 통과된 평판 나쁜 헌법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모반을 기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불법적인 권력에 대한 모반일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까지 사회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중은 탄압에 반항하여 봉기하는데 이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행복을 도모함에 있기 때문이다. 민중이 여전히 이중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음을 깨닫는 한, 지배자가 무엇이랴 말하든 문제가 안 된다. 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했거나, 완수되었다면 지배자가 죄를 저지른 것이다.

나의 사상을 따르다보면 사회는 다시 미개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당신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금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나는 바로 그들의 제자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의 공화국 정부보다 심문이 너무나 불철저했다는 점에서 군주정치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마블리, 엘베티우스, 디드로, 장 자크 루소 등의 유해한 책을 내가 읽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주정치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박애주의자들이여! 만일 저들 옛날 박애주의자들의 악영향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당신들의 도덕률과 당신들의 미덕을 따랐을 것이다. 또한 아마도 이 세상의 소수 권력자들의 안위만을 염려했을 것이고, 고난받는 대중에게겐 무자비했을 것이다.

당신들 기소장에 실린 내 글의 일절이 바로 1758년에 루소가 한 말임을 당신들은 물랐는가? "남들이 굶어죽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는 추악한 인간들"이라는 내 글은 원래 루소가 했던 말이다. 내가 이 사실을 서슴없이 공개하는 것은 루소를 나의 새 공범자로 끌어들여도 당신들 재판권이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저 인망있고 다정다감하던 마블리, 그는 더더욱 악질적인 반역자가 아니었던가? 마블리는 "우리의 제반 악덕의 근원을 찾아 나가면 그 가장 깊은 뿌리에 재산의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다. 우리가 상자 속에 처박아놓고 다시 꺼내본 적도 없는 평등인선언을 두고 당신들은 야단법석을 떠는데 그 선언문은 마블리나 루소가 했던 말을 넘어서지 못한다.

디드로는 말했다. 왕에서부터 대주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사적 이해에 지배되기 마련이고, 사적 이해는 소유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철학자들이 제아무리 훌륭한 정치형태를 논한다 해도 소유권 자체를 뿌리뽑지 않는 한 모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디드로는 모든 재산을 공유한다면 과연 제국의 동요 및 주기적인 홍망성쇠가 거듭되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모든 시민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서 얻고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혐오스러운 소유권 원칙을 복구하려는 자는 모두 인류의 적이자 위험한 미치광이로 간주하여 감금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여러분! '위대한 미치광이'라는 말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 한다는 이유로 당신들이 내게 갓다붙인 바로 그 말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집정내각과 의회에서 집무하고 있는 탈리앙과 아르망 드 라 뢰즈, 어쩌서 이들은 법정에 불려오지 않았는가? 바로 몇 년 전, '상퀼로트의 뱃'을 발행하면서 탈리앙은 우리에게 "부의 불평등만 덜해지면 무정부상태는 바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또 아르망 드 라 뢰즈는 국민의회에서 이렇게 단언하지 않았던가? "진정한 평등이 없는 정치적 평등은 단지 감질나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해야 한다"라고. 또 "혁명단체의 최대의 과오는 그들이 소유권의 한계를 정하지 못함으로써 인민을 부자의 탐욕스러운 투기행위에 내맡겨버린 점에 있었다"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또 네가 남들에게 바라는 바대로 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평등한 법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내 눈으로 직접 세상형편을 볼 수 없었을 때조차 나는 그 사정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필화사건으로 투옥되었을 때 흑심한 기근이 닥쳐왔지만 나는 처와 불행한 세 자식을 돌볼 도리가 없었다. 빵 배급량이 2온스로 줄어들자 일곱 살난 어린딸은 굶어죽었고, 나머지 식구들도 너무 몸이 여위어 다시 만났을 때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만 닥쳐왔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파리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야위어 뼈만 남고, 힘이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제도를 원했다 해도, 그 제도를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으로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내 모든 소원은 인민이 자신의 무한한 힘과 자신의 권리의 신성불가침함을 깨닫고 확실하게 되는 것과 인민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필요한 경우 인민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인민의 동의가 없는 한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블리, 디드로, 루소, 엘베티우스가 이루어내지 못한 일을 내가 어찌 이루어내기를 바라겠는가! 나는 그들의 보잘것 없는 제자요, 우리 공화국은 그들의 군주제보다 훨씬 덜 관용적이지 않는가?

.....

그러나 내 아들들아. 저들이 법을 어기고 면회조차 시켜주지 않은 까닭에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버린 이 재판정에서 단 한가지 후회의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어야겠다. 다름 아니라 모든 행복의 원천인 자유라는 유산을 너희들에게 남겨주기를 그토록 바랐었지만 너희들 앞길엔 오로지 노예살이밖에 보이질 않고, 너희들을 온갖 악의 제물로 남겨둔 채로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닌 공민도덕, 폭정에 대한 깊은 증오심,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의에 대한 열렬한 헌신, 인민에 대한 정열적인 사랑마저도 물려주지 않겠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너무도 파멸적인 선물이 되고 말테니까.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닥쳐오고 있는 전체적 탄압하에서 그런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겠는가? 나는 너희들을 노예로 남겨둔 채 떠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 가슴을 찢어놓는 유일한 생각이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노예상태를 좀더 잘 견뎌낼 수 있는가를 충고해 주는 것이 아비된 도리이겠으나,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출처] 마비프의 변론 | 작성자 바다거북이